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2, 이스라엘 및 역대기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August Konkel 박사와 역대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부 이스라엘과 역대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개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역대기의 마지막 세션을 마칩니다.

우리의 요점은 역대기의 역사, 즉 그 시대에 기록된 방식이 암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건설하기를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움을 받는 이 작은 집단의 사람들을 위한 정체성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시 주변의 벽이나 사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누구이며 왜 중요하며 왜 중요한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기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그는 일종의 논리적인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인류의 시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이 역사의 개요에서 연대기 작가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 마음 속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역사를 쓸 수 있는 가장 축약된 방법을 제시합니다.

역사를 쓸 수 있는 가장 짧은 방법은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글썄요, 그것은 사람들의 관계, 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대기 작성자는 그 모든 것을 이름만으로 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연대기 작가의 이야기에서 특히 중요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그 이름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기 작가가 그의 독자들이 이야기에 대해 모두 알고 꽤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을 읽고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아담부터 시작하여 9장까지의 처음 9장에서 해당 시점까지의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34.

예훗 에서 이 시점에서 그들의 위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확인한 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정의하는 핵심 사항을 제시합니다. 이는 다윗의 이야기, 왕국의 창립 이야기, 성전 준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야 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으로 대표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주변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대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다윗으로 시작하고, 그의 모든 초점은 다윗과 성전의 기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는 성전의 기능을 그의 시대와 매우 유사하게 묘사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그의 시대에 조직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따라서 그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큰 부분은 솔로몬입니다. 족보와 다윗의 이야기 후에 그는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는 유다 왕들 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북쪽이 두 번째 왕국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연대기 작가가 이것을 모르고 그의 독자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 약 722년에 아시리아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다양한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기 기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특별히 관련된 어떤 것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성전과 다윗, 그리고 약속과 솔로몬이 왕국을 세우는 데 한 일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과 그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 여러 왕들이 통치하던 유다의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행복한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하스로 끝나고 성전이 혼합주의에 의해 완전히 타협되어 더 이상 예배의 장소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연대기 기자는 그의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인물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왕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열왕기서 3장, 이사야서 4장, 역대기 4장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히스기야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 권의 다른 책에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연대기 작가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복원하는 일에서 솔로몬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기의 히스기야 이야기는 열왕기서와 히스기야서에서 읽은 모든 내용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역대기 기자가 보기에 히스기야가 행한 일이 여호와와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전을 회복하셨고 히스기야의 성전 회복에 대해 세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히스기야 이후에도 이야기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와 성전도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폐허로 남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연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대기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역대기의 첫 부분에 이르면서 우리는 족보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연대기 작성자의 족보를 가계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족보를 작성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할된 족보라고 부르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모든 후손을 포함합니다. 아마도 배우자 측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시작하는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확장하면 족보는 점점 더 커지고 집중됩니다. 특정 가족에 대해. 이것은 연대기 작가가 때때로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분할된 족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가문을 취하고, 그 시대에 이 가문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족보가 단순히 일련의 후손만을 나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선형 족보라고 부르는데,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단 몇 구절만으로 450년의 역사를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족보에 관한 또 다른 점은 그것이 하나 이상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임을 알 수 있지만, 역대기에 오면 사무엘은 레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면서 레위 사람일 수 있습니까? 음, 사실, 여러분이 족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물론 그것은 가능합니다.

내 말은, 그는 에브라임에 살았던 레위 사람일 수도 있고, 에브라임 사람일 수도 있고 레위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무엘서에서 읽는 족보는 역대기 기자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기자는 우리가 사무엘을 레위인이자 제사장으로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주로 사무엘서에서 그를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를 선지자로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펼쳐지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갖는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시대에 세계의 국가들은 대부분 지금 우리가 영어로 중동이라고 부르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노아까지 데려갑니다.

처음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창세기 5장을 가져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노아로 데려갑니다.

노아 에 이르면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10장과 홍수 이후의 나라들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자, 이것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의 창세기 10장은 포괄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은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입니다. 야벳은 그리스의 모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셈은 오늘날 우리가 이라크와 시리아라고 부르는 나라의 모든 나라입니다.

우리가 셈족으로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변 지역.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창세기 10장을 자신의 번역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창세기 10장이 무엇인지 매우 정확하게 반영한 후 우리를 셈족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창세기 10장에는 정확히 70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쓴 긴 시인 신명기 32장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에 따라 세상의 모든 영토를 할당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서는 이스라엘 아들의 수가 정확히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통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표 목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사도행전에는 75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본문에서 숫자 70은 매우 중요했고, 역대기 기자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숫자 7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셈에 도달하고 그것이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역대기 저자는 그가 자주 하는 방식으로 신학적 진술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곧 아브라함이라 하십니다. 이제 그가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가 큰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높아지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큰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바로 그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단지 한 단어만 추가했을 뿐인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것이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마엘과 그두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대부분 서부 아라비아에 살고 있고, 그두라의 자손은 대부분 남쪽 끝과 동쪽 아라비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창세기 36장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세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역사와 창세기에서 붉고 붉은색의 세일은 항상 에돔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항상 에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세일은 어원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족보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세일에 관한 어떤 것도 없지만 역대기 기자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는 그것에 관한 어떤 종류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왕자로 생각해야 할 세일 왕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상당히 작은 영토를 다스린 다음에는 에서를 거쳐 아브라함의 후손이 끝나는 에돔과 세일의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데려옵니다.

역대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인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분은 열방의 관점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자기 순서대로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 그 다음에는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주었느니라.

따라서 이름은 창세기 본문에 모두 나와 있지만 레아와 라헬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탁월함과 탁월함을 주기 위해 역대기 저자가 직접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August Konkel 박사와 역대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부 이스라엘과 역대기입니다.